

동양제철화학 주가 이상급등 “논란”

1개월 동안 100% 급등 8만원대 형성 ... 미래에셋 13.99% 보유도 의혹

동양제철화학 주가가 기관투자자의 주식 매입 등으로 1개월만에 2배로 급등해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목표주가를 2배 수준으로 올린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래에셋그룹이 최근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14%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해 동양제철화학 주가 향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특수관계인 6인 포함)은 3월 장내 매수를 통해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추가로 57만5764주(2.88%)를 사들여 보유지분을 13.99%(279만3994주)로 확대했다. 금액 기준으로 2257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월5일(종가 기준) 4만2700원이던 동양제철화학 주가는 최근 8만원대로 1개월 전의 2배로 뛰었으며 주가이익비율(PER)이 14배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삼성증권이 최근 동양제철화학의 목표주가를 현 주가의 2배 수준으로 올린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신규사업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e)을 통한 장기 성장성, 인천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추가상승 여력이 많으며 목표주가로 14만원,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사업가치(1조8000억원)와 부동산가치(89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동양제철화학의 적정가치를 2조 6000억원으로 평가했다.

또 2006년 650억원이던 동양제철화학의 순이익이 2007년 900억원, 2008년에는 1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송준덕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핵심전지인 폴리실리콘을 2008년부터 3000톤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 시장은 과거 3년간 연평균 48% 성장한데 이어 추가성장이 가능하며, 2010년까지 공급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양제철화학은 해외기업 인수로 글로벌회사로 변모하고 부동산 가치까지 부각돼 투자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동양제철화학의 가격부담이 커져 밸류에이션 가치가 낮아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투자자의 펀드 환매 등으로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만큼 뒤늦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 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현재 가격이 성장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5만-6만원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주가수준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전망이 매우 밝고 인천공장 부지 개발 호재도 긍정적이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보유 부동산 가치를 모두 반영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고수준은 1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동양제철화학 주가는 4월10일 장중 8만440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급등 부담으로 9일보다 0.86% 하락한 8만800원에 마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동양제철화학 투자에 대해 미래 성장가치에 주목한 장기투자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최대 화두인 기후변화에 주목해 동양제철화학의 미래 성장성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3-4년 뒤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먹고 튀는> 성격의 투자자라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0>